

## 사례30. 담도질환에서 MR cholangiopancreatography의 유용성

홍길동 등 6명은 같은 종합병원 다른 과 임꺽정 등 2명과 함께 담도질환의 임상 및 MRI 소견을 2006년 국내학술지에 발표하였다. 관찰기간은 2002년 3월부터 2004년 2월까지 총 2년, 대상 환자 18명이었으며 ‘담도질환의 진단을 위한 MR cholangiopancreatography의 유용성’을 임상 소견과 함께 보고하였다. 환자 중 4예의 사진이 게재되었다. 같은 종합병원 다른 과 이몽룡은 전 논문의 책임저자였던 홍길동과 공저자였던 임꺽정 및 동료의사 4명과 함께 ‘담도질환에서 MRI의 유용성’을 국제학술지에 2007년 발표하였다. 연구기간은 2002년 3월부터 2005년 2월까지 총 3년, 대상 환자의 수는 23명이었으며 첫 논문의 대상 환자가 모두 중복되었다. 환자 사진 6예가 실렸으며 첫 논문 4예가 모두 포함되었다. 첫 논문에서는 임상 소견의 포함되어있으나 논문의 핵심 내용은 MRI 소견이었으며, 두 번째 논문에서도 간략하게 핵심적인 임상 소견을 기술하였다.

### 구성 요소별 판정

항목	내용	판정
저자와 소속	두 과에서 각각 다른 학술지에 발표	3명이 공통
가설	담도질환에서 MR cholangiopancreatography가 유용하다는 첫 논문과 MRI가 유용하다는 두 번째 논문	다름
대상	연구기간에 차이가 있어 증례가 추가됨 대부분의 대상이 중복	첫 논문에 대상 환자 2명 추가
연구방법	첫 논문에서 보고된 임상 소견은 두 번째 논문에서 일부만 소개	핵심내용인 MRI 소견은 동일
결과	사진 대부분이 중복 사용되었음	동일
새 정보	MRI 소견 동일	없음

## 추가 사항

항목	내용
발표 학술지 관련	국내학술지에 국문으로 2006년 게재, 국제학술지에 영문으로 2007년 게재, 두 번째 논문에서 국내학술지 인용 없음
표	두 연구 모두 표 2개, 형식 동일
그림	그림 각각 4개와 6개, 4개 중복
참고문헌	각각 17, 16개이며 8개 동일
연구비 기술	모두 기술 없음

## 해설

항목	내용
중복출판	첫 논문 책임저자 소속과 다른 과에서 연구기간을 1년 연장하여 증례를 추가한 후 국제학술지에 투고한 imalas의 예임. 연구방법, 결과가 동일. 관찰기간이 늘었고 연구대상이 많아졌지만 새 정보 없음 •유형: 대상, 관찰기간 늘이고, 가설 추가한 덧붙이기출판
다른 윤리문제	없음